

THE O

[ð i : ʊ] [디:오]

○의 변화와 도전 :

월의 무한회전을 의미하며 핸드즈의 경영철학을 나타냅니다.

○의 화합과 조화 :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보를 나타냅니다.

항상 새로운 콘텐츠로 변화하는 사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사보 THE O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ER STORY

2016년 봄호

사보 'THE O'의 봄호 표지는 법무지원실 한소희 대리가 '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보 'THE O'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주제로 핸드즈인들이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표지 작업을 함께합니다.

발행일 2016년 4월(통권 011호)
발행인 승현창 회장
발행처 핸드스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편집장 김경태 상무
편집위원 이연우 차장
편집/디자인 박세훈 대리, 김빛나리 사원

THE O VOL. 11
2016 봄



○ HANDS STORY

04	HANDS NEWS
14	리틀핸즈 소식
18	핸즈 사랑 실천

○ HANDS PEOPLE

23	히든 핸드즈인	핸즈의 자랑스러운 얼굴
28	핸즈 현장을 가다	도장5반
30	숨은 가족 찾기	H6 생산1부 이영우 사원, H6 합리화부 이정우 사원
32	웰컴 투 핸드즈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36	핸즈 생활 백서	상호 간에 예절지키기
38	힘이 되는 한마디	가족, 동료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 HANDS INFO

42	가고 싶은 그곳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운 곳, 구봉산
44	생활 외국어	소포보내기
46	노하우 플러스	봄철 캠핑
48	건강 플러스	비알콜성 지방간
50	핸즈 도서관	2016 핸드즈 추천 도서
53	생생 맛집 정보	이비가 짬뽕
54	축하합니다	출산, 결혼, 칠순을 축하합니다



아이는 색에 안겨 자라니까

거실 벽의 초록으로
아이는 숨을 쉬고
의자의 노랑 위에서
아이는 밥투정을 합니다
테이블의 파랑을 두드리며
웃음을 터트리고
침대의 분홍 안에서
아이는 잠이 듭니다

엄마 손이 닿지 않을 때도
아이는 색에 안겨 있으니까
엄마가 보지 못할 때도
아이는 색을 만지며 자라니까

아이의 모든 색을 건강하게 합니다



숲으로 홈앤웰빙
국내 최초, 대한아토피협회 아토피 안심마크(KAA) 인증

H A N D S S T O R Y



04

HANDS NEWS
숫자로 보는 핸드



06

HANDS NEWS
남구청 이웃사랑 실천 협약식



07

HANDS NEWS
노사 한마음 워크샵



12

HANDS NEWS
핸즈 어린이 그림 전시



14

LITTLE HANDS
재롱 잔치



16

LITTLE HANDS
설날 행사



18

핸즈 사랑 실천

HANDS NUMBER

더 나은 **HANDS**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HANDS**
숫자로 알아보는 **H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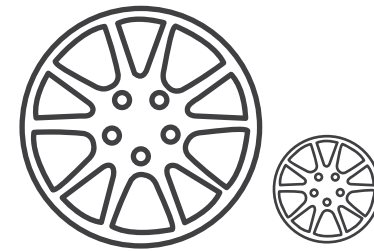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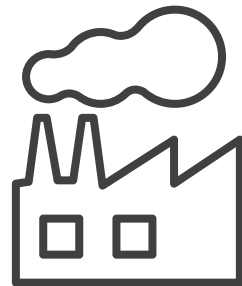
1
No.1
HANDS



핸즈는 자동차 휠 분야에 진출한 이래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자동차 휠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자랑하는 자동차 휠 전문 기업이다. 지금의 성취를 넘어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핸즈인 모두가 하나되어 앞으로 더 전진하자

7
Plant
HANDS

핸즈는 국내에 7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휠 공장인 HANDS1, HANDS2, HANDS3, HANDS5, HANDS6와 기술연구소 HANDS THUMB, 기계 설비 제작을 담당하는 HANDS MECHANIC 까지 전 공장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지금의 국내 1위 기업인 핸즈가 될 수 있었다.



1400

핸즈는 2004년 연간 생산량 600만개의 휠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지금은 무려 1400만개를 제작하는 업체로 성장하였다. 핸즈의 가파른 성장세는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되어 일치 단결한 결과였다. 이로써 핸즈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달성한 것들도 많지만 앞으로 달성할 것들이 더욱 기대되는 핸즈의 내일을 기대해 보자.

**KEY
WORD**

44



1972년 동화합판으로 설립된 핸즈는 2016년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였다. 초창기 자동차 휠 분야의 후발 기업에서 지금의 선두 기업이 되기까지 지나간 시간 동안 많은 핸즈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창립 44주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 기업이 되는 핸즈를 꿈꾸어 본다.



2020

핸즈는 2020년까지 Global Top3, 매출액 1조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 기술 개발, 생산 능력 확대, 해외 신규 업체 발굴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멋진 행보를 펼칠 핸즈의 2020년을 응원해보자.

HANDS

남구청 이웃사랑 실천 MOU 체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인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핸드스코퍼레이션은 2016년 2월 1일(월) 인천 남구청장실에서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핸드 이석주 사장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박우섭 남구청장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핸드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을 남구청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핸즈의 사회 공헌 활동은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으로 형식적으로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 2013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 많은 인천 지역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핸즈는 사람 중심의 복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사회 공헌을 진행하고 있다.

남구청과 실시한 이웃사랑 실천 협약식을 통해 남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여러분의 동참이
하나의 **HANDS**를
만듭니다

선진 노사관계를 넘어 모범이 되는 **HANDS**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노사 한마음 워크샵

상생과 협력의 핸드스코퍼레이션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노사 한마음 워크샵.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서로를 알아 갈 수 있었던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자.



노사 한마음 워크샵 1차

2016년 1월 27일, 모두가 사옥에 모여 주의 사항과 워크샵 진행일정에 대해서 전달받은 후, 사옥에서 2시간여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용문사에 도착했다. 용문사로 가는 길은 조별로 모여 함께 올라가며 평소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며 걸으며 마음속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어서 외롭지 않고 함께 걷는 동료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용문사에 도착 후, 조별 단체 사진 미션을 위해 모든 조가 열심히 미션 장소를 찾아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사진 찍는 위치를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은 학생시절로 돌아간 아이들의 모습처럼 즐거워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용문사에서 미션을 마치고 레크레이션시간을 가졌다. 레크레이션을 하기 전, 간단한 체조와 함께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풍선 불어서 높이 세우기, 공 옮기기 등의 협동 미션과 제기차기, 신발 던지기 등의 다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나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고, 그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망의 고기 파티가 시작되었다. 맛있는 음식으로 허가 즐겁고, 노래방에서 끼를 뽐내는 시간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었다.

다음날은 즐겁게 보냈던 장소를 떠나는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 했다. 웃음, 행복, 즐거움이 가득했던 시간을 보내고 떠나는 그길이 아쉽지만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모습으로 즐겁고 하나되는 노사 워크샵을 기대해 본다.



노사 한마음 워크샵 2차

2016년 3월 23일, 1차에 이어 2차 노사 한마음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워크샵 일정 등에 대해 전달 받고 실시한 조원 이름 외우기 게임! 갑자기 실시한 게임에도 불구하고 8조 조장인 신동선 사원이 빠르게 답해서 선물을 받아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노사 한마음 워크샵을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 양주의 딱따구리 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각 조별로 짐을 풀고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개선 사항등에 대해서 조별끼리 토론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실시한 레크레이션 시간.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몸을 풀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4개조로 조를 나눠서 신발 던지기, 림보, 단체 줄넘기, 계주 등을 실시했다. 최종 경기의 승자는 레크레이션 계주에서 승리한 약지팀에게 돌아갔다.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이후 실시한 O, X 퀴즈. 핸드스에 대한 상식 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 문제도 함께 풀면서 상식왕을 뽑는 시간이었다. O, X 하나에 울고 웃는 모습을 보며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게임을 보는 사람 모두 웃을 수 있었다. O, X 퀴즈 이후에는 바베큐 파티를 하며 첫째날 하루를 마쳤다.

둘째날에는 운동장에 숨겨 놓은 보물을 찾는 보물 찾기 게임 및 단체 기념 촬영을 하며 노사 한마음 워크샵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1차, 2차 노사 한마음 워크샵'을 통해 앞으로도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되는 핸드스코퍼레이션이 되기를 바란다.



‘감동’
현장에 우리아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휴게 공간에
제 아이의 그림이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핸즈 휴게 공간의 변화

HANDS 휴게 공간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핸드 휴게실에 임직원 자녀들의 그림을 전시하였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재미있는 그림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항상 밝게 해주고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온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을 통해 핸즈의 활력에너지를 불러 일으켜 본다.

이번 전시회는 사내 휴게 공간을 개선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핸드인 자녀들의 그림을 접수 받고 현장 휴게실에 게시하여 어린이들의 그림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동심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동안 휴게실은 핸드인들에게 잠시 시간을 보내는 무의미한 장소 였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 휴게실이 단순히 잠깐 휴식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림을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휴게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자녀들에게 소홀했던 핸드인들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핸드인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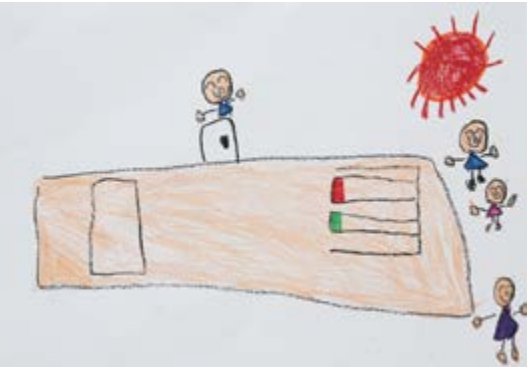


가족과 봄나들이 가요
핸즈코퍼레이션
시작반 유세진 사우 자녀
(유다은_만6세)



사랑하는 우리 대가족
핸즈코퍼레이션
품질관리1반 김종근 사우 자녀
(김도현_만5세)

가족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요
핸즈코퍼레이션
플로포밍3반 이성국 사우 자녀
(이현석_만6세)



더 많은 그림은 각 공장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핸즈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매 분기별 주제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재롱잔치 매년 기다려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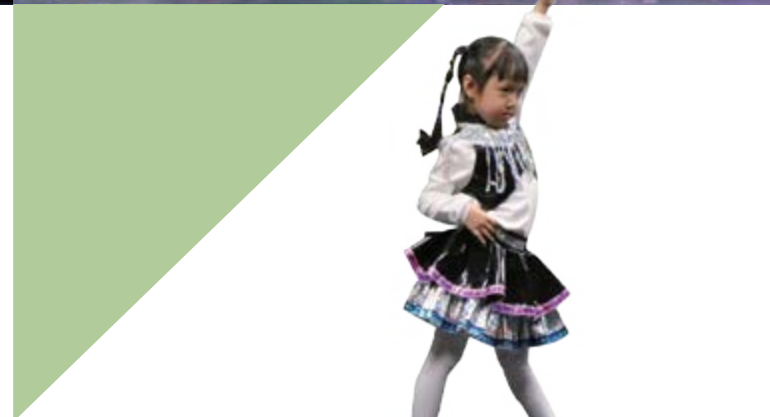


리틀헨즈 어린이집 한유남 원장은 “재롱잔치 무대에 올리기까지 수고해 주신 보육교사와 잘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내년 리틀헨즈 어린이집 재롱잔치에는 더욱더 다채로운 공연과 지금보다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온가족이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를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월 29일. 헨즈 사옥에서 리틀헨즈 재롱잔치가 열렸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놓칠세라 사진찍기에 바빴다. 영어연극, 태권도, 댄스, 음악회등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선보이며 보는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했다. 특히 아이들의 귀여운 댄스는 가족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틀헨즈 어린이집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놀이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맞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놀이를 체험해 보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알록달록 색깔 설빔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리틀헨즈 어린이들은 서로의 한복을 뽐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우리의 전통놀이인 팽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설 노래 부르기, 세배하는 법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장선생님은 한명한명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지금처럼 건강해라, 엄마아빠 말씀 잘 들어라” 등의 덕담과 함께 새뱃돈 봉투를 건네 주었다. 아이들은 봉투를 선생님 몰래 열어보기도 하고, 옆에서는 새배 연습을 하는 등 사뭇 진지한 모습이였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리틀헨즈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 진행을 통해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추억을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새해에는 리틀헨즈에 어떤 즐거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보자.



“제가 만든 팽이가 이쁘죠?”

행복한 나눔 따뜻한 기적을 선물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포근한 행복을
선물하는 핸드인. 풍성하고
따뜻한 나눔 활동이 이번
사회공헌에도 이어졌다.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 올린
사회공헌. 주변을 살뜰히 챙기는
핸즈인들의 작은 나눔은 우리
이웃의 집집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나선 핸드인들.
언덕과 비탈이 이어진 좁은 골목골목 사이로는 쉴 새 없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웃들과
따뜻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 따뜻한 기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핸드의 사랑 실천 활동은 계속된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 자신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긴
시간이었어요
핸즈인이라는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고압 수전설비
 내선, 외선, 플랜즈 전기공사
 용해로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 계장공사
 공장, 아파트, 빌딩, 전기소방
 소방공사

무정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보통신공사

DAE DONG ELECTRIC CO.,LTD.

본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중앙로 189번길 8-7 / 지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4번길 19-5
 전화 : 032-816-7800 / FAX : 032-816-7802 / E-mail : ddeco059@hanmdsil.net

이 광고는 협력업체 광고입니다.

H A N D S P E O P L E



23

히든 핸드즈인



28

핸즈 현장을 가다



30

숨은 가족 찾기



32

웰컴 투 핸드즈



36

핸즈 생활 백서



38

힘이 되는 한마디



최고의 품질

가스 시공 업 제 1종

도시가스 연료 전환 버너 설치
LPG 저장시설 및 사용시설 시공



완벽한 시공

기계설비 공사업
생산배관 설비 (AIR, 급수, 냉각)
냉/난방 설비 시공 (EHP, GHP)



최고의 서비스

전문 소방설비 공사 업

소방 기계 설비 시공
(옥내/외 소화전 및 SP설비 등)
소방 전기 설비 시공(자탐설비 등)



늘 웃는 얼굴과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다.

남다른 열정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자세는

핸즈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핸즈의 자랑스러운 얼굴.

4명의 히든 핸드인을 소개한다.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는 곳, HANDS



이상규 조장
핸즈6
생산2부

HANDS6의 가공공정 설비에 빨간색 알람이 울릴 때면, 달려가서 설비 이상을 해결하는 슈퍼맨과 같은 이상규 조장. 꼭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 저리 살피보며 가공 설비를 다루는 그를 보며 조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일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다.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하고,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일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보다 뛰어난 많은 HANDS6 직원 중에 왜 자신이 히든 핸드즈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핸드즈인에 선정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핸즈란 저에게 집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열정과 에너지가 마구마구 샘솟는 곳입니다.”라고 말하며 핸드즈에서 일하는 도전적인 일들을 해결할때 기쁨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본인을 한마디로 성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말에서 열정, 노력,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최고 품질의 휠을 생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그를 보며, 핸드즈가 지금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원천에는 모든 핸드즈인들이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도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핸드즈인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HANDS에서 또다른 나를 발견하다

주조기의 홀딩로를 만드는 축로 업무를 하는 제작반의 김효한 사원. 홀딩로를 견고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그가 있기에 지금의 튼튼한 핸드즈 주조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자랑스러운 히든 핸드즈인 김효한 사원이지만, 처음 핸드메카닉에 입사했을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다 보니 지금처럼 축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변화하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저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변의 칭찬을 받으니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더니 지금의 결과가 된 것 같아요”라며 히든핸즈인 선정 이유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를 보며 그동안의 노력이 느껴졌다. 특히 평소에 그는 ‘이건 왜 이럴까?’, ‘이러면 안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자주 한다고 했다.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 개선할 것들과 제안할것들이 많아 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더욱 발전하게 해주고, 그러다보니 일을 할때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핸즈에서 홀딩로 하면 김효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그를 보며, 핸드즈인 모두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휠 메이커가 되는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효한 사원
핸즈코퍼레이션
기계제작부

HANDS5 도장 공정의 전처리 라인에는 도장반 유일의 홍일점 조효숙 사원을 볼 수 있다. 조효숙 사원이 담당하는 전처리 공정은 도장하기전 휠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하고 제품 표면의 부식 방지를 위한 약품 처리를 하는 공정으로서 휠에 제대로 된 도장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공정이다. 그녀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작업 표준을 지키며 작업하는 것을 기본 마음가짐으로 삼고 일을 한다. '나로 인해 불량은 절대 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조효숙 사원 으로부터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그녀는 항상 일을 할때, 수첩에 메모하고 기록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도장반에 지금 여사원은 저 혼자지만 남자 직원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맡고 있는 업무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라며 핸드즈인으로써의 커다란 포부를 느낄 수 있었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핸드즈에 감사 하고 핸드즈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그녀 의 앞날이 더욱 기대가 된다.



자랑스러운 핸즈인

HANDS는 내 마음의 안식처

HANDS3 가공3반 이순재 조장은 가공 불량 제로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때까지 알고자하는 노력형 인간이라고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그를 보며 핸드 최고의 가공 공정을 위한 열정을 알 수 있었다. 이순재 조장은 히든 핸드즈인에 선정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함께 열심히 일한 조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감있게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며 근면 성실해서 된 것 같다고 말하며 겸허히 웃었다. 그의 말 하나하나에서 핸드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때도 있지만 항상 ‘나의 일’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또, 결혼 후, 지금까지 내 옆을 묵묵히 지켜준 와이프, 두 딸 서연이, 승아를 생각하면 더 힘이 나더라구요”하며 그는 일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핸드즈에 대해서 자신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해 준 마음의 안식처라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핸드와 핸드즈인을 좋아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노력하는 그를 보며 앞으로 더욱 변화될 가공공정을 기대해 본다.



최고의 집중력으로

최고 휠을 향해 전진합니다

도장공정은 최종 가공 디자인 된 휠에
색상을 입혀 휠의 외관을 미려하게 한다.
휠의 상품성과 가치를 높이는
공정인 도장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에서부터 도장5반의 A조, B조, C조



로딩



전처리



분체 도장



액체 도장



완제품 포장

휠이 완제품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도장 공정.
제품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만큼 도장공정의 핸드인들은
항상 최고라는 생각으로 일한다. 특히 한순간의 방심이
대량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
되지 않는다. 매사에 집중하여 불량을 최소화 한다. 단
하나의 완제품이라도 최고의 품질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도장 공정 소개

로딩_가공된 휠을 도장 하기 위해 로딩을 실시한다.
도장을 하기 이전에는 모두 동일한 색상의 휠이지만
도장을 통해 색상이 변화한다.

전처리_화장을 하기 이전에 얼굴을 정돈하는 것처럼,
휠을 도장 하기 이전에 표면상태를 정리하여 도장하기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

분체 도장_아주 고운 가루 입자를 제품에 고르게 뿌려서
색을 입히는 방법이다. 색이 고르게 칠해지고 대기오염
이나 수질 오염 등의 공해 문제가 없어 친환경적인 도장
방법이며 당사에서는 주로 하도 및 상도에 사용된다.

액체 도장_물체의 보호, 미관 등을 위하여 물체의 표면을
피복할 목적으로 수지, 안료, 용제, 첨가제 등으로 만들어
진 액체를 도료하는 공정이다. 당사에는 주로 중도 및
상도에 사용된다.

완제품 포장_완제품을 업체에 발송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공정으로서 완제품 출하를 위해 제품에 대한 수량
정보 및 업체 품번 정보등을 부착한다.

형제보다 더 형제같은 사촌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믿는다.
무뚝뚝해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H6 생산 1부
이영우 사원

H6 합리화부
이정우 사원

핸즈 여러분들에게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영우(사촌형)_핸즈 휠을 제작하는 최종 공정인 도장 공정의 아크릴 라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공정을 담당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 품질의 휠이 제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사촌동생)_합리화 소속으로 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라인의 주조, 가공, 도장 등 모든 기계설비에 문제 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통해 생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여합니다.

어떻게 회사에 입사하셨나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영우_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다가 핸즈를 알게 되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사한지 7년이 되었는데 핸즈에 입사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_저 역시도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직장을 찾다가 핸즈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러 핸즈에 왔다가 우연히 회사에서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한테 핸즈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좋은 회사라고 입사하라고 추천해줘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생긴 에피 소드가 있으신가요?

이영우_동생이 입사지원서를 내려 왔을때 우연히 동생을 회사에서 만나게 기억에 남네요. 정우를 이곳에서 만날거라곤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이정우_저도 형을 봐서 정말 놀랐었어요. 형이 다니는 회사인줄 몰랐거든요. 그때 형에게 핸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 봤었던 기억이 있네요. 좋은 회사라고 말해준 영우형 덕분에 지금 이렇게 형과 함께 회사 사보에 나올 수 있는거 같아요.

가족과 함께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것은 어떤가요?

이영우_근무하는 조가 달라서 회사에서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돌이 만나서 회사 이야기를 하며 서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정우_제가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가끔 도장 설비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도장라인에서 근무중인 형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그 덕분에 도장 설비의 문제 발생시에 더욱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이 하고 싶은가요?

이영우/이정우_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To. 고마운 동생에게

정우야, 어릴 때 함께 산적도 있어서 유독 너와는 사촌이라는 감정보다는 형제 같은 느낌이 많은 것 같아. 커가면서 경험했던 많은 추억들과 함께 인생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해결해 갈 수 있어서 좋았어.

너가 먼저 결혼하고 제수씨의 소개로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너에게 고맙다라고 잘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많이 고맙게 생각해. 지금까지 쑥스러워서 한번도 제대로 고맙다라는 말은 못했지만 항상 형과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정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핸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오래 다니자. 항상 행복해라.

From. 항상 함께 하길 바라는 형이

